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5호 [주제 제25804호] 주제 106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점령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자

대중을 총돌격전으로 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들어줘고 사상사업을 광세적으로
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전
지를 철물같이 다져나가야 합
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당중앙
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에서 세시된 파업한월에로 일군
들과 당원들이 근로자들을 불러
입으므로 조직정치사업을 전공
적으로 벌리고 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
조직들에서 집중적인 사상공
세로 만리미대진 군을 힘있게
추동하고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불고 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일군
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
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헌신
하게 벌리고 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강습파
장과 활판파 담사를 통하여
선전선동일군들을
조선로동당의 당으로

장과 발전 시켜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구체 득시기도록 하는 한편
예술공연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때두산길세워인들에 대한 태합
없는 경모와 흥모의 열기가 온
시간에 차단되자고 하고 있다.

봉강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드높이 깃들
이 있는 유효혁명사적환경건사
업을 틀어쥐고 뻐른 기간에 경
축으로써 사적판이 위대성교
양의 거점으로 풍물히 꾸려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려행위
업은 편성불에이라는 액체불연
의 신념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건설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
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으로 모를 박고 어려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동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각 구역, 군당위원회들과 시
안의 각급 당조직의 선전일군들
이 조선원 정체의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부위의 외진 설립인
서도와 지제도에서 전문화한
사업을 꾸려오고 있다. 군, 중요공장,
기업조직들에서 선전일군들과 합심하
여 봉화하고 사업을 찾은 당선전일
군들은 혁명적인 도서들도 안겨
주고 현시기 계시된 당정책들과
당과 학부문에서 이룩된 경
적인 성과를 대하여 알려주면서
서 동네원들과 가족들이 당을
만드는 한길에서 범합없는 흥신
으로, 신념의 장차로 삶의 일하
도록 이끌어주었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제반미계
금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계급교양기침들을 풍물히
꾸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크게
작전하고 활동하게 밀고나가고
있다.

금성트락포르공장은 시에술
선전대를 확장한 일군들은 현지
에 자주 나가 직관선과 방송

선전, 해설선전, 예술선동 등 어
려가기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
정치사업을 풀기자며 밀려온
온기와 혁명열, 무정열로 물어
번지자고 하고 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모든 당선
전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날알
달기전후로 둘러는 협동농장들
에 나가 농장동반대종과 함께 어
울려 날알털기를 하면서 선전
사업을 꾸려 헐리도록 하고 있다.

봉사자 뒤무일 군들은 각 구
역, 군, 중요공장, 기업조직들에서
밀려나온 선전일군들과 합심하
여 봉화한 각업명을 불이 번뜩
나게 해체연대에 이어 내부공사에
서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은 접단계
혁신의 불길이 새차개 바난지
고 있는 금성트락포르공장과 온
천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질증하
여 정치사업의 실효율 높이고 있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은 접단계
혁신의 불길이 새차개 바난지
고 있는 금성트락포르공장과 온
천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질증하
여 정치사업의 실효율 높이고 있다.

집단적으로, 풍물적으로, 평화적으로
여기는 혁신성정치사업과 당
선전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에
고무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세시된 파
업관철을 위한 후평에서 물고
는 일념안하고 배우이전후에 한사

트파기자 주 창선

을 두루면 선교와 경향에 기초
하며 서로의 친화와 힘을 학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건조

김책 대경수산 종합기업소에서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에서

제작대경수산종합기업소에서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호

제작의 힘과 기술로 《황금해》호

제작의 배를 무어내는 차량한

성과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전을 헌신하였다.

《황금해》호계렬의 배를 무어내

는 차체보강으로 《황금해》

그 은정 못 잊어 설레이는 농장벌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을 돌아보고

이 땅 그 어디나 이민위천의 뜻을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풀피워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봉도적 적이 떠밀리 새겨져 빛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을 찾았다. 자랑찬 전면의 벽사가 수놓아진 이곳을 돌아보며 우리는 행정과 풍물을 품으시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시고 만족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풍물에 헌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소재지위치를 좋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리소재지를 잘 꾸리도록 하여 한다. 하시며 보부리를 가로막은 길을 밟아주시었다.

이때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 해 가을에 절세위인들께서는 보부협동농장을 찾으시고 이 농장이 나아갈 길을 헤쳐주시며 농장에 불멸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일적을 견결히 옹호하고자 끊임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을 이룬 것은 중년이었다. 주론은 산발을 배경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이며 혁명사적묘지 그리고 친나루, 향나루 등이 위치한 곳에 정기 세획전지에 출판된 장군님의 헌신과 보부리를 위한 혁명사적비가 한반도 해발 속에 빛을 뿐이었다.

리본회관과 문화주택을 통이 한 세 어울린 보부협동농장의 전경은 한때 일종, 고스모스로 만만한 꽃송이를 위하여 더욱 이제로 빛난다.

«우리 보부리아말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 속에 살기 좋은 고장으로 견변되었답니다.»

혁명사적비 앞에서 박순복관련위원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절세위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물려일으키며 우리를 잊지 못할 역사의

나날에도 이끌어갔다.

주체 56(1967년) 6월 4일, 그날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을 함께 걸으시며 이곳 보부협동농장을 찾으셨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보부리를 찾으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장리를 보부리로 부르게 된 것은 당과 조국을 위하여 값 있게 산 피보너님의 정치적 행정을 빛내여 주시는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윤정길은 사랑의 결과이라고 표시하시였다.

우리는 3대 혁명을 기록한 농산제1작업반 포진도 둘러보았다.

우리와 만단 정기선작업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글씨라도 농장 벽을 함께 찾아오실 것 같아 그리움을 품었지만 같다 그려움을 품을 수 없다며 세월이 훌쩍 지나며 우연히 찾았던 그들이 일손을 하면서 당시 개천군 마장리를 그의 이름을 물어 보부리로 부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보부리의 농축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리보부녀성의 모습이 선하게 아졌다. 정명한 너성이 있다. 그의 가슴속에 얹혀 간직된 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이었다.

망국의 그 세월 침중반도 뜯한 천대 및 평안남도를 받아온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나라의 주인, 왕과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어버이 수령님,

민주개혁의 첫 사업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 속임당을 물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생생한 인민의 어버이, 은혜로운 때양이었다.

우리 인민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빼앗고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짓밟으려고 미제는 칠각전쟁의 불을 질렀다. 그러나 원쑤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우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언 해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높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나시고 봄소실원에 구현하신 애국주의의 숭고성과 비상한 견인력, 커다란 생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최고정화이다. 역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한 애국자들, 후세에 이를 남긴 애국명장이나 국수들이 있다.

혁명사적비 앞에서 박순복관련위원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절세위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물려일으키며 우리를 잊지 못할 역사의

마애 척명의 천안미길, 애국의 한길을 걸어오며 일생의 진가를 알고 정신력의 강자로 억세게 자리나게 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애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알뜰 귀중한 사상정신적 향식이며 천안군 민모두를 대에 이어가며 창파에서 애국자로 키워온 자양분, 김일성민족의 넓은

보부협동농장은 찾으시여 이 농장에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 보도를 듣고 전원회의를 하는 기간에 우물을 팔았는데 매우 기쁜 일이라고 친히 하신 어버이수령님,

보부협동농장이 당정책원장에서 앞장섰다고 하시며 친히 이곳에서 보여주기 사업도 조직하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었다. 내 나라, 내 조국과의 물 한포기,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물은 사람이라면, 조국을 전정으로 사랑한다면 김정일애국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높이고 숨결이다.

조국의 유풍과 미래는 국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정신력이다.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든 나라와 억제제부를 가지고 있어도 평화로이하지 않지만 그들이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 있는 나라는 비록 일시

임씨가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었다. 내 나라, 내 조국과의 물 한포기,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물은 사람이라면, 조국을 전정으로 사랑한다면 김정일애국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높이고 숨결이다.

조국의 유풍과 미래는 국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정신력이다.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든 나라와 억제제부를 가지고 있어도 평화로이하지 않지만 그들이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 있는 나라는 비록 일시

임씨가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분위하시였다. 그 옆에 풍랑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어 아름다운 꽃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그 명세를 지켜 물길이 험난

